

수묵과 채색, 미학의 세계 알기

한·중·일 현대수묵화展

세 나라 작가 70명의 솜씨
12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이영로작 '구성'

한·중·일 삼국 수묵화의 특성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한·중·일 현대수묵화'전이 1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 2전시실과 중앙홀에서 열린다.

백이 지닌 고유의 미감을 바탕으로 중의의 수용성과 붓의 활달한 움직임을 조형화한 현대수묵화의 맛을 보여줄 이번 전시에는 서구 추상미술의 미학 개념을 한국화단에 도입한 김홍도 화백을 비롯해 서세옥, 홍석창, 송영방 등 한국작가 24명과 중국 근대 100년 사상 최고의 화가로 평가되는 저우스충과 장리현, 현상, 스한시 등 26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일본은 자유분방한 기질과 수묵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일본 현대수묵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고오 야마 미사오를 비롯해 이라마쓰 레이지, 가호 아키라, 이시모도리 타스야 등 20명이 참가한다.

나라별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은 문인화풍과 실험정신이 두드러지고, 일본은 폭넓은 재료와 전위적인 운필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양회화가 갖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022188-6043)

채색, 그 아름다움과 힘展

박성광 씨 등 6인의 작품
14일부터 가나아트센터

'채색의 숨결-그 아름다움과 힘'전은 20세기 채색화의 영역을 확립한 작가와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한국 채색회화사의 맥락과 성과들을 짚어 보는 전시다.

14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서울 풍장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전시에는 박성광, 박래현, 천경자, 이화자, 정종미, 김선두 등 6명 작가의 작품이 선보인다. 한국채색회단의 독보적 존재인 박성광은 '보함산해물' '청담스님' '무속' 등 민족 정신을 직관으로 형상화했으며, 전통채색양식을 과감히 탈피했던 천경자는 '장미와 나비' 등 감각적 색채의 작품을 내놓는다. '몽유도원도'



박성광작 '보함산해물'

와 '행' 시리즈를 각각 선보이는 정종미와 김선두는 장지기법으로 독특한 색채감각과 체계를 발견해 나가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제1전시장은 박래현과 천경자의 작품이, 이화자 정종미 김선두의 그림은 제2전시장에서, 제3전시장은 박성광의 특별전 코너로 꾸며진다.

이번 전시는 전통채색화의 다양한 수용 방식과 채색화가 갖고 있는 힘 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720-1020)

이은자 기자 ees@budhappa.com

김흥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미국의 윌슨 호숫가에 토굴을 짓고 모든 시간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진실된 삶을 시도한 소로우가 2년 이 지난 뒤 그 동안의 숲 생활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쓴 것은 '숲 생활의 경제학'이란 글이다. 인적 없는 숲 속에서 홀로 생활하며 그가 내린 결론은,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철학과 경제학은 동의어'라는 사실이다. 자연과 그 속에 깃들든 생명력에 대한 놀라운 발견은 인생에 대한 통찰과 깊은 사색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형성된 신념과 철학은 먹고 자고 입는 등의 사소한 일상의 경제학으로 실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숲 생활은 그에게 먼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깨우쳐준 것 같다. '그날 일하지 않으면 막지도 않는다-日不作一日不怠'는 백정규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경제학과 철학이 동의어라는 소로우의 말은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학(Economy)과 생태학(Ecology)이 어원학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사실을 상기해 준다. Eco는 그리스어 Oikos에서 온 말로 '집' 혹은 '거주'라는 뜻이다. -nomos는 nomos(법률)에서, -logos는 logos(학)에서 왔다.

따라서 Economy(경제학)는 '살림하는 법'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 Ecology(생태학)는 '살림의 학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말하자면 두 단어 모두 원래는 '가정살림을 꾸린다'를 의미했는데, 지금은 '사회의 살림살이'로 그 뜻이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두 단어가 원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동의어였지만, 자연에 대한 입장에서는 각각 '자연개발'과 '자연보호'를 지향하며 서로 반의어가 되고 말았다. 현대 사회의 모순적 상황은 단어 한마디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일까.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으로 생명을 살리자는 것인데, 경제학은 인간만을 살리자는 이기주의가 되어 오히려 자연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마침내 경제학을 견제하기 위해 생태학이 출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태생적으로는 쌍둥이지만 이제는 라이벌이 되어버린 이코노미와 에콜로지야 서로 화해하고,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는 없는가?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정신의 힘'

숲 속 호숫가의 생활을 기록한 소로우의 책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주위의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세밀한 관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연 속에서 늘 '정신의 힘'을 발견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마다 그는 자신이 옥수수처럼 훌쩍 크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숲 생활 중에 <바가바드 기타>, <논어>, <도덕경> 등의 동양고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깨닫지기 그치지 않는 '윌슨 호수'는 그에게 물질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차라리 정신적인 공간이었다.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내 생각 드는 곳에 떠 있다.' 그리고 그 순수한 호수는 우리를 각자의 마음속에도 고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운다.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자신을 탐험하여 내면의 윌슨 호수를 발견하라.' 2년 간의 토굴 생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영혼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의 필수품은 '깨어남'이라는 사실이다.

■문학평론가



전통 우리음악의 세계를 감상하며 한해를 마무리 하자. 사진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공연 모습.

국립국악원 '선달의 정감'

송년음악회

황병기 교수 '달하 노피곰' 가야금 독주

국립국악원은 올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송년음악회 '선달의 정감'을 마련한다.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약'으로 꼽힌 종묘 제례악(宗廟祭禮樂)으로 장중하고도 화려하게 무대를 여는 이번 송년음악회에서는 서도소리 인간문화재였던 고 오복녀 명인의 뒤를 잇는 김광숙, 유지숙이 들려주는 서도소리의 백미 '수심가, 영음수심가'와 남도 민요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첫날 21일에는 올해 가야금산조 유파별 연주를 총안성한 서울대 이재숙 교수가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관현악과 협연하는 특별무대가 마련된다. 둘째날 22일에는 창작국악의 상징적 예인이라 일컬어지는 황병기 교수가 자신이 작곡한 가야금독주곡 '달하 노피곰'을 연주한다.

이밖에도 창작 우리 노래 '어디로 갈까나' (김영동 곡, 백 피워라' (박범훈 곡) 등을 젊은 국악인들이 부르고, 대금연주가 원장현세의 대금독주 등이 이어진다. (02580-3300) 이은자 기자

티베트박물관 '문 열다'

'의식용 법구展' 마련

티베트인들의 삶과 문화를 담은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티베트박물관(관장 신영수)이 1일 문을 열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자리한 티베트박물관은 개관기념으로 '의식용 법구(法具)展'을 마련했다. 박물관 1층에는 불교의식에 쓰이는 마니차와 마정수기봉을 비롯해 불상과 탑을, 2층에는 라마승의 의식용 법구의 등 3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열반한 라마승의 두개골로 만든

탈과 티베트 길상 8분 중 하나인 대법라사(나팔) 등은 티베트 문화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박물관은 앞으로 신영수 관장이 수집한 티베트 유물 1000여점을 각기 다른 주제로 전시할 예정이다.

신 관장은 "전시품들의 사진과 설명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www.tibetmuseum.co.kr도 곧 문을 연다"며 "앞으로 티베트 유물뿐 아니라 불교서적들과 다구(茶具)들도 모아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요일 휴관. (02735-8149) 여수영 기자



티베트박물관에는 불교유물, 생활유물 등 3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사진은 티베트 향로.

문학소식

법진 스님 초청 선화전

'선화에 담긴 법음의 세계'를 주제로 한 법진스님 초청 선화전이 15일부터 23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40여년간 법패를 연구해 온 스님은 이번 전시기간동안 매일 오후 2시 '그림에 담긴 소리' 법패공연과 오후 3시 '즉석 그림' 시연을 펼칠 예정이다. (02732-2183)

불교합창단 '한마음 축제'

전국 8개 지역 불교합창단이 참여하는 전국연합합창단 '한마음 축제'가 12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전국연합합창단 창단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청주, 울산, 포항, 제주 등의 사찰 합창단으로 구성된 지역합창단 8개팀 400여명이 동참한다. (02723-0440)

신품종 녹차 3종 선보여

전남 보성군 보성차시험장은 보성1호(보향), 보성3호(명선), 보성5호(함백) 등 3개 신품종 차를 개발, 농림부 신하 종자심사위원회에 등록을 출원했다.

새 품종 보성1호는 생장이 균일해 기계화 재배에 적합하고, 보성3호는 고탄닌 계통으로 기능성 차 품종으로 알맞다. 보성5호는 저카페인 계통이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팔모주름등, 팔모조림등, 옥곽등, 공단등, 종등, 만월등

신제품: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보관상태, 종등 보관상태

◆종소리는 사명으로 울려 퍼지대 사람을 각성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종 소리를 지극 정성을 구하여 악일과 고통을 멈추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세계 많은 옛 사람들이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이러한 뜻을 받들어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식할 수 있는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실용신안 등록
◆의정출원

◆연꽃일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친위 홈페이지: www.chanduk.com
경기도 하남시 준곡동 180-1 e-mail: chanduk21@hanmail.net